



내 일은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종이에
담는 것입니다

TOGETHER⁺

함께

Vol.24 2017 WINTER

COVER STORY

봉천동 시장 골목 사이에 위치한 독립책방 달리, 봄. 시장에 위치한 서점이 낯설게만 느껴질 법도 한데 이곳은 시장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서점에는 페미니즘 이문서, 젠더 연구서적 등 여성주의 관점에서 쓰인 다양한 책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서점과 더불어 자서전 제작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달리, 봄의 류소연 대표님이 이번호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분위기와 느낌을 종이라는 소재를 통해 소통하는 곳

봉천동 시장의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시장 끝에 동네서점이 하나 자리해 있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장 내에 이상하리만치 조화롭게 어울리는 서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하숙집 청년들이 잠시 들러 책을 구경하고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도 이곳에 잠시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걸으러 보기에 다른 동네서점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곳에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진열된 책의 제목을 하나하나 훑어보니, 여성이나 젠더 위주의 서적들이 눈에 띕니다. 자신이 평소 관심 있게 봤던 책을 집어들고 조용한 장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 이 서점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모두 종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종이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CONTENTS



함께하는 일의 재미

- 04 > 특집 기획
365일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의 연말정산!

함께하는 일의 의미

- 06 > 현장 속으로 1
캠코 희망 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 09 > 현장 이슈
'Smile Together Partnership(STP)'
임팩트리포트 6년의 성과를 담다
- 10 > 현장 속으로 2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함께 만든 아이들의 웃음

함께하는 일의 흥미

- 12 > 일하는 물
종이밥을 먹고사는 페이퍼 잡스(Paper jobs)

내일에서 on 편지

- 14 > 인터뷰
투갑스,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재단소식

- 17 > 재단 동향 및 이슈
- 18 > 「임팩트리포트」 발간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4 2017 WINTER

발행인 송철주 |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알.쓸.참.코

(알고보면 쓸모있는 참여 코너)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호에도 기다리셨던 독자참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시고 소식지를 꼼꼼히 정독해 주세요. 소식지 안에 퀴즈의 답이 있습니다.

날말퀴즈 맞추기

| | | | | |
|---|---|---|---|--|
| | | 1 | | |
| 1 | | | | |
| | | 2 | 2 | |
| 3 | 3 | | | |
| | | | | |

가로

- 1) <현장 속으로 2>에서 STP 지원사업으로 야간 학교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국가는?
- 2) 재단의 핵심 사업이면서, 동시에 재단은 사회적으로 양질의 OOO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 3) <현장 속으로 1>에서 취준생들을 위한 OOO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세로

- 1) 해외사업 STP의 한글 사업 명칭이면서 웃음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 2) <일하는 물>에서 허스토리는 페미니즘 서점 외에도 개인 OOO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직장에서 개인이 맡아서 하는 일을 뜻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business, work, task라고 표현합니다.

* 독자참여 방법 *

퀴즈에 참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메일 (shmin2016@hamkke.org)로 성함, 전화번호와 함께 전송해 주세요. 당첨되신 총 10분을 선정해 선착순으로 사회적기업이 만든 달콤한 잼을 발송해 드립니다. 소식지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다음호 독자 후기란에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65일 소소하지만 소중한 기억들의 연말정산!

함께일하는재단 후원자님들께 2017년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올 한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내년에는 후원자님들 모두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멋진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너를 계기로 후원자님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같이 소통하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 경영기획팀 송원규 책임매니저 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정선영님

올해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가 벌써 학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초부터 꼭 운동을 열심히 하리라 다짐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스스로에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많이 후회가 돼요.

함께 일했던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이의 학교 입학으로 올해 일을 쉬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던 한 아이가 걱정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올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제 생일에 준 편지와 그림이요. 멋지고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과 함께 준 선물은 정말 최고였어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올해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최고의 요리사라고 할 때였어요. 요리를 잘 못해서 살짝 창피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해준 음식을 잘 먹어주어서 보람 있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하시나요?

일단 인상되었다는 것에 만족해요. 하지만 조금씩 더 올라야겠죠. 많은 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만족도를 별점으로 매긴다면 몇 개를 줄 수 있을까요?

별 5개 중에 4개요. 일단 일을 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도 엄마가 언제든 지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많이 안정되었어요.

새해 특별한 목표를 세웠다면 무엇인가요?

복직을 해서 일에 잘 적응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예요. 다시 워킹맘으로 돌아가야 하니 많이 걱정되고 이 시간들이 아쉽지만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다독이고 싶어요.



하지영님 가족

올해 가장 기뻐던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뜻이 모아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도 못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심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딸 아이가 글씨를 깨우쳐 저에게 편지를 써 주었을 때요.

함께 일했던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랜 기간 함께 일하다가 퇴사한 직원이에요.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제 남편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건강인 것 같아요.

올해 가 본 최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은 없네요. 굳이 꼽아야 한다면 자연이 좋은 캠핑장 정도가 생각나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이가 일하는 엄마로 인식해 줬을 때요.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몸무게가 7kg이나 늘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존 경력직 직원들의 시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줘야 하는 분위기거든요. 하지만 제 자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올 한해 만족도를 별점으로 매긴다면 몇 개를 줄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6점 정도 주고 싶어요.

새해 특별한 목표를 세웠다면 무엇인가요?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해 제 스스로 건강해지고 아이도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또 화를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어요.

하지영님의 에필로그

이 코너에 참여하면서 실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네요. 이렇게 기쁘고 기억에 남는 일 없이 일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제 개인보다는 일과 관련된 부분에 몰두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스스로와 가족에 소홀했던 한 해였다는 반성도 하게 됐어요. **wf**

**특집기획 코너에 참여해 좋은 말씀 나누고 싶은 후원자님은 연락주세요. 경영기획팀(02-330-0713)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철이 없지, 꿈이 없냐’ 캠코 희망 Replay, 대학생 취업잡 Job이 프로젝트

과도한 취업경쟁과 취업준비금 부담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함께일하는재단과 캠코가 희망을 Replay 합니다! 밀착형 취업역량 캠프와 코칭을 통한 취업 완벽 대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힘찬 첫 발을 응원합니다. 캠코 취업잡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쭉~~~욱.

기획/편집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참여 학생, 후기를 들려줘!

자신감을 심어주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함께일하는재단과 캠코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1개 도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1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캠프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2박 3일 간 진행된 취업 역량강화캠프에 총 8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소서, 인적성, 면접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갔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빛은 열의에 빛났고 그만큼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 28명의 취업준생들 취업에 성공하다!

취업캠프 이후에도 취업캠프 수료자를 대상으로 5개월 간의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전문가 밀착코칭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역별 모임을 통해 참가자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실제 모의면접과 동일한 상황에서 모니터링하며 강점을 확인하고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8명의 참가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취업된 학생들도 학습을 바탕으로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희망 분야에 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현실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_최현규 학생(서울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 취업잡(Job)이 프로그램 기에 참여했던 최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가 끝난 겨울방학, 취업에 대비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기위해 몇 군데 기업의 인턴전형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고배를 마셨고 제가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이대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및 교육을 찾다가 취업캠프를 알게 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올해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학습을 하며 진행된 취업캠프는 자기소개서부터 구조화면접, 인성면접, PT면접 등의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모의 면접과 같은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캠코 인사담당자가 들려주는 취업과 관련된 답변들이 실제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캠코 문창용 사장과 토크콘서트 같은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되어 2박 3일 간의 캠프가 지루하지 않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캠프의 장점은 일회성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멘토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 활동들과 큰 차별점이었습니다. 실제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캠프 이후 진행된 멘토링에 대한 진행사항 역시 체계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취업 일정과 맞추어 차례대로 진행된 전략적 지원, 자기소개서, 인적성 학습법, 인성면접, 역량(구조화)·PT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한 감을 더욱 뚜렷하게 잡을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캠프와 이후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4학년 학기를 다녔고 전환형 인턴전형 위주로 입사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인턴 경험도 없고 특별한 스펙도 갖지 못한 제가 삼성화재를 비롯한 몇몇 기업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융기관 취업의 꿈을 열어준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6개월 간의 이야기”

_이재승 학생(부산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6살 이재승입니다. 2016년 12월 초 당시 금융공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던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취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2박 3일 간의 취업캠프, 자소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취업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캠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함께일하는재단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취업캠프 대상으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기대와 설렘이 컸습니다. 그리고 취업캠프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은 취업캠프를 통해 만족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부족하게 생각했던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 시 주의사항,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등 각 전형마다 취업 전문가분들이 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접준비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수참가자로 선정되어 취업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참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팀원들은 운이 좋게도 취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비슷해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안부도 묻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캠프가 끝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밀착 취업컨설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취업보조금으로 평소 부족했던 영어시험에 비용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도전한 결과 제 목표인 토익 800점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익힌 면접기술을 통해 평소 관심이 있던 금융기관의 실제 면접장에서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고 각 기업의 1차 면접이 완료된 후 마침내 ‘최종 합격’이라는 기쁨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함께일하는재단과 캠프에서 진행한 취업잡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저에게 면접이라는 기회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제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참여하라고,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wf



‘Smile Together Partnership(STP)’ 임팩트리포트 6년의 성과를 담다

STP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지역아동 및 주민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임팩트를 기대하며 조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발행되는 STP 임팩트리포트에는 재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팩트리포트 발간의 중심에 있으면서 후원자분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에듀코 김경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호 현장이슈의 후속편으로 임팩트리포트 진행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에듀코 김경연 대표 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STP 임팩트리포트 발간에 참여하게 된 계기

A 2012년부터 참여했으니까 STP와의 인연도 6년이나 되었네요. 올 봄에 임팩트리포트 작성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부담이 많이 되어서 주저했는데 책임감도 느끼고 욕심도 좀 생겼습니다. 사실 기관들을 선정할 때 반신반의했던 기관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는 모습들을 목격했던요. ‘그래 이런 건 소문 좀 내줘야지’,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담벼들었습니다.

임팩트리포트 발간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연세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도 저의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팀 작업을 불편해하고 개인 작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느꼈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다. 그런데 준비과정을 즐기는 팀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각 팀에게 가장 보람이 됐던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팀의 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평생 볼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산하세요!”

STP 임팩트리포트 발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A 연세대 학생들이 초기에 보인 반응은 ‘숫자가 아니고 어떻게 임팩트를 증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숫자 외에 참여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로 증명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태도를 주목한다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학생들이 작성해온 인터뷰 기록을 보면서 저 역시도 몽클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성장이 진정한 변화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돈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수단화하기 쉬운 세상에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메시지가 이번 리포트를 통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wf



에듀코 김경연 대표

아이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함께 만든 아이들의 웃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야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미얀마 공립교육에서는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승급, 졸업시험에 떨어지고 부모님들은 아이를 다시 학교에 보내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내에서 먼 마을에 사는 학생들은 교육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밤에는 전기 공급도 어렵습니다. 사회적기업 아퓨아용사회개발은 반따노 지역 식물인 띠을 이용해 돛자리를 생산하여 수익도 창출하고 교육도 실시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공부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골마을의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방과후에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야학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STP 기금으로 발전기를 구입해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은 야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간학교는 ‘공부하는 맛’을 알게 해주었어요! 저는 미얀마 아용보디마을 야학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나 습관을 알 것 같아요. 야간학교에 가는 게 재미있어요.”

_아용보디 학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습관과 학업 성취도가 좋아졌어요. 부모들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마치 교육지원 네트워크 같은 모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저녁에도 우산을 들고 야학에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_뚜청마을 학부모

재단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인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을 통해 빈곤가정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본적으로 빈곤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의 STP 파트너 기관에서 전해 온 마을 아이들의 변화 모습을 전합니다. 특히, 미얀마, 네팔 2개 국가 아동들과 지역주민들의 변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성금이 타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웃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글 | 국제협력팀 홍지현 인턴 편집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저는 2016년 5월부터 데이케어센터에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숙제를 싫어해서 선생님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됐어요. 또 제 숙제를 마친 후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숙제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행복하고 센터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_산담 스텝스타 학생



저소득층 여성들이 일을 해야만 하는 네팔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어머니와 아이에게 복지환경을 제공해요

네팔에서는 여성들이 근로하는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러나 방과 후에는 어머니의 일터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고, 어머니들도 수업이 끝난 아이를 데려 오느라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굿앤즈네팔에서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봉제를 배우고 봉제사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사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머니 대신 학교가 끝난 아이들을 픽업해 주어 어머니들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이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어머니의 육아부담을 줄여 주고 좀 더 좋은 환경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wif](#)

1. 야간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2. 지역 식물인 띠을 이용해 돛자리 만드는 모습
3. 사내 데이케어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활동하는 모습
4. 봉제를 배우고 있는 모습

종이밥을 먹고사는 페이퍼 잡스 Paper jobs

같은 소재나 물건을 가지고 저마다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종이를 활용한 직업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창업가들 중 종이를 활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글/취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종이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들과 종이를 매개로
소통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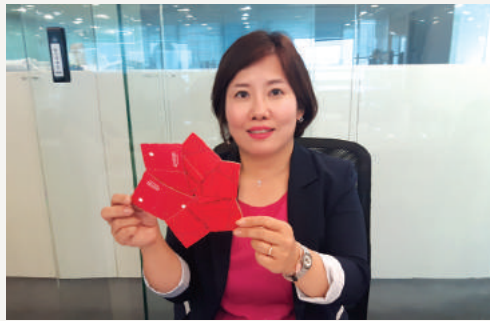
종이로 할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을까요. 위로하는 그림이
되고, 한 사람을 말해주는 책이 되고,
무한히 순환하며 나눔을 실천하죠.
종이로 하는 일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문이에요

스튜디오비랩(박혜진 대표)
사람을 위로하는 드라이드로잉 상품 제작

종이는 저에게 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제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종이를 옮겨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물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면 보물이 되는 것

스페이스함께(권혜린 대표)
더 많은 사람에게 정리의 행복을 주는 공간큐레이팅

종이를 재활용해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살릴 수 있어요. 안 쓰던 물건을 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물인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면 보물이 될 수 있죠. 또 종이를 분리배출하면 자원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종이는 정리수납을 하는 데 있어 나눔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종이를 활용해서 정리수납을 하고 있는데 사랑과 나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삶과 나를 바꿀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러블리페이퍼(기우진 대표)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구입한 폐박스로 만드는 캔버스아트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종이는 다른 의미겠지만, 저에게 종이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종이 자체가 변화 무쌍한 재질이며 쓸모 없어진 종이도 캔버스 그림으로 활용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러블리페이퍼 안에서도 변화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삶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허스토리(류소연 대표)
자서전 제작과 페미니즘 독립서점 운영

종이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책을 만들다 보면 책이 그분의 이야기이고, 글을 통해 그분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분들의 삶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종이 선택되고 책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종이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느낌이 좋다고 생각되는 종이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wif](#)



‘내일에서 on 편지’ 경찰 편

투갑스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김영관



염윤호



누구나 미래의 직업에 대한 꿈을 꾸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찰을 꿈꿨고 그 꿈을 직접 실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 세대의 청년들도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경찰관들이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주었습니다. ‘내일에서 on 편지’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기획 | 경영기획팀 김연수 책임매니저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경찰이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

김영관 경찰관 중학교 특별활동시간에 제가 평소 좋아했던 담임선생님이 ‘넌 커서 경찰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경찰관이라는 꿈을 갖게된 것 같아요. 중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도 장래희망을 경찰관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염윤호 경찰관 어렸을 때는 합기도 체육관을 다니면서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했고 활동적인 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다보니 경찰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매력을 느껴 경찰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경찰관 배지를 달기까지 과정

김영관 경찰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경찰학과에 입학했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교 3학년때 경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의 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합격보다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새벽 4시만 되면 학생들이 학원 앞자리를 맡기 위해 줄을 서고 한 손에는 컵밥을, 다른 손에는 암기 노트를 든 채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렇게 치열하게 남들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경험을 통해 대학교에 복학한 이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도서관과 집만 오가며 시험준비를 했어요. 덕분에 졸업 전에 경찰이라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일찍 경찰시험에 합격한 것은 제가 꾸준한 신념을 갖고 묵심하게 학습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변에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염윤호 경찰관 저는 남들보다 빨리 군대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경호실 안에 있는 경찰관 101단에 소속되었을 때 선배들이 군대에서 했던 업무처럼 똑같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송을 보면 경찰관들이 대부분 싸움을 잘하는 걸로 묘사되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력유지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지만 경찰이 되기 위해 체력관련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죠.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고 난 후

김영관 경찰관 경찰이 된 후 순찰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경찰서 내부의 인사와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멋진 제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강한 모습들을 떠올리며 경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경찰이 되어 내부에서 바라보니,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외향적인 멋보다 ‘법을 잘 지키고 청렴한 경찰이 되자’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보다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염윤호 경찰관 이전에는 의전을 주로 담당했다면 지금은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민간과 접촉하며 일하는 부분이 많아요.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활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 TV에서 보도되는 강력사건은 드물어요. 경찰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내부에 다양한 업무 분과가 있어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찾아 이동하면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순환보직의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맡은 지역경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억울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에서 on 편지’ 경찰 편 참여 이유

김영관 경찰관 친구에게 ‘내일에서 on 편지’에 대한 기획의도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선뜻 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목적성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 나눔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직접 실천해 보자고 마음먹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제 작은 나눔이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염윤호 경찰관 친구의 추천도 있었지만 이런 좋은 캠페인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참여하는 금액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큰 금액이 아님에도 그 금액을 잘 모으면 또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꿈이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용되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 취지를 알고 참여하게 됐으니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런 의도를 잘 알려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예요.** 현재 고향에 있는 보육원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연말에 제 이름이 적힌 소식이 발행되서 와요. 그걸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돈을 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거든요.** 제가 낸 후원금이 그렇게 사용된다면 좋겠어요.

김영관 경찰관

작은 나눔도 실천하는 경찰관

사회가 뒤숭숭하다보니, 제 주변에도 나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나눔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동료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볼 생각이예요. 그래서 함께 조금씩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좋은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다보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작은 나눔도 실천하는 경찰관이고 싶어요.

염윤호 경찰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찰관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그게 많이 아쉽고 앞으로 아이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일전에 경찰관 교육을 받으러 갔었는데 하루에 20km씩 뛰며 훈련하니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선배 교육관이 해준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였어요. 지금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당장, 조금만 지나면 추억이 될 뿐이니가 그 상황을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에서 노력하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분명 요즘 청년들에게 엄청 힘든 시기인 건 잘 알고 있지만 열정으로 버티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wif**

✉ 내일에서 on 편지

가족, 직장, 친구, 동일 직업 등 10명이 모여 내일을 밝히는 나눔 킷에 참여해 주세요.
(사연 문의 : 02-330-0715)



내일에서 on 편지 QR코드



허그(HUG) 세어하우스 2호점 입주자 모집

재단은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허그 세어하우스 2호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임대료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강화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해 취업 준비까지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2호점은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비용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카카오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재단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7기에 참여하고 있는 러블리페이퍼와 함께 카카오 같이가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노년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시중 10배 가격에 어르신들의 폐지를 매입해 캔버스를 제작, 제품 판매 비용을 어르신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내년 2월 21일까지 카카오 모금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9기 모집

유한김벌리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은 시니어의 일자리 증진과 시니어들에게 더욱 편리한 제품을 제공하는 소기업을 육성 및 발굴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액티브 시니어 관련 제품 개발 소기업 33개를 발굴하여 총 97개의 서비스를 생산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시니어 약 300여 명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참여기업 9기는 12월 중으로 모집할 예정이니 기업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에너지특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

함께일하는재단은 에너지 특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미래 에너지 분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와 함께한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에너지 특성학교등학교 3곳의 취약계층 청소년 5명에게 1인당 100만 원, 4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여행가방 디자인 공모전 2차 심사진행

지난 9월 함께일하는재단은 한국공항공사와 양천구청과 함께 여행가방 디자인 공모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천가방협동조합 종사자들의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모형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11월 말까지 완성된 샘플작업으로 12월 중 일반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 당선된 작품은 내년 신상품으로 제작 및 출시예정에 있습니다.



신세계아이앤씨 특성학교 IT희망키움사업 피칭데이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일하는재단은 2016년부터 IT특성학교 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개최한 IT's 챌린지 대회를 시작으로 대회에서 수상한 4개 팀에게 각 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약 6개월 간 개발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특성학교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피칭데이가 12월 16일 흥대 팀플레이스에서 진행됩니다.

STP가 아동빈곤 근절에 한 발 다가서는 새로운 도약 「임팩트리포트」 발간

함께일하는재단 지음/ 함께일하는재단 출판
2017년 12월 04일 발행(예정) / 15,000원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은

재단은 2010년 기획설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 STP)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양육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SBS 희망TV 모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빈곤 아동들을 위해 학용품이나 급식,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가정 내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함께일하는재단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네팔, 인도,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부터 아프리카 우간다, 남아메리카 과테말라까지 총 12개국에 22개 프로젝트를 기관당 3년간 지원해왔습니다.

「임팩트리포트」 제작배경

후원자님들이 주신 기부금을 더욱 소중히 쓰고 그 성과를 짚어 보기 위해 본 사업의 임팩트와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평가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임팩트리포트 출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17년 봄, 2010년부터 함께일하는재단과 산학협력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uGET의 지원과 경영전략, 데이터, 지속가능성보고, 개발협력사업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성 기부를 통해 「임팩트리포트」 Vol.1을 기획,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리포트 내 STP 파트너기관 방문 및 학생 현장 조사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uGET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해외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세창업혁신프로그

램(Yonsei Venture, Innovation & Startup Program, YVIP)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임팩트리포트」 성과

임팩트리포트 내에는 STP 사업비 지원기간이 끝난 지 2년 이상된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직접 연세대학교 uGET 학생들이 방문하여 사업의 정성적 성과에 대해 파트너기관의 대표자 및 직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정량적 성과로 그동안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 수와 임금을 비롯한 고용의 질, 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미래세대 양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임팩트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7개 기관 이외에도 이번에 방문한 사업이 진행 중인 5개 파트너의 개별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STP 파트너 기관들의 사회적임팩트와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21억여원의 기금 중 83.23%인 18억 2천만 원 정도가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되어, 세계 각국 51,992명의 웃음을 만들어낸 이야기와 구체적인 데이터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요청

재단에서 진행하는 해외지원사업 가운데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TP)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임팩트리포트>를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하여 <임팩트리포트>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받으실 분의 성함, 연락처, 주소, 신청하는 이유 등을 간단히 적어 메일(smartmarie@hamkke.org)로 보내주세요.

이번호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23호 알.쓸.참.코(알고보면 쓸모 있는 참여 코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분들께는 12월 중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1인당 1매씩 개별 문자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식지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당첨자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호에도 후원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니 <함께+> 소식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션 1

‘내.편’ 잡(Job) Go!

정답: 9개, 11개(복수정답)



정답을 맞추신 분들 외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지는 못했으나 이번 호 독자참여 코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차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호에는 꼭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아이디 jcs5816 님

아이디 flyover85 님

아이디 ksc38317 님

아이디 lpysl 님

아이디 withyou102 님

미션 2

소식지에 실린 장소에 내가 등장! 이거, 실화냐?

<아차상 발표>

아이디 lsmlsl 님

이번에 마포 아트센터에서 클래식 행사가 있었는데 공연 보러갔었습니다.^^ 그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걸 보니 부듯하네요! 다음호도 기대하겠습니다. _lsmlsl 님

에이프런잡스 코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 가지 소재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 돌아본다는 컨셉이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번 소재도 기대가 됩니다!

_flyover85 님

이번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일의 재미라는 특집기획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이렇게 좋은 내용과 활동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이벤트 감사합니다.

_lpysl 님

네팔관련 기사가 참 좋네요. 해외취업 일자리 많이 소개해주세요.

_ksc38317 님



디자인 상품은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위드토리가 시니어의 열정과 함께합니다

꿈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위드토리는 시니어의 예술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아트상품화하는 시니어 아티스트 브랜드입니다. 나아가 아트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시니어의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청년들의 꿈도 함께 지원합니다. 위드토리는 나이와 환경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오로지 디자인만으로 상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든 것이 잘 팔릴까? 실력이 좋지 않은데 가능할까?' 도전하기 전에 궁금증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 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잘해야만 꿈을 이루고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시도할 때 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들요.

위드토리에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참여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익숙한 청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와 편집과정을 거쳐 충분히 트렌디한 상품으로 탈바꿈되어 아트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여도 좋습니다. 위드토리는 단순히 상품만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도 함께 응원하는 브랜드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나눔의 브랜드입니다. 열정이 있는 시니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츠의 자사브랜드인 위드토리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지원하는 2017년 유한김벌리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 대상 기관입니다. 시니어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그들의 디자인을 입힌 아트상품을 통해 나이를 뛰어 넘어 디자인만으로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일자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자 하는 시니어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세요.